

# 4명 이상 사망 총기 난사 역대 최다 ... 197명 희생

올해 미국에서 네 명 이상의 목숨을 앗아간 '총기 난사' 사건이 38건이나 발생해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4일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올해 총기 난사로 사망한 피해자는 모두 197명, 총에 맞았으나 다행히 목숨을 건진 사람은 91명으로 집계됐다.

이전까지 가장 많은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했던 해는 지난해로 총 36건이었다.

올해 발생한 38건의 총기 난사 가운데 쇼핑몰이나 파티장 등 공공장소에서 발생한 사건은 10건에 그쳤고, 대다수는 주택이나 보호소에서 발생했다.

WP에 따르면 2006년 이후 현재까지 미국에서 발생



▲ 올해 총기 난사로 사망한 피해자 수는 197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사진=shutterstock

한 총기 난사 사건은 총 453건이다.

2018년까지 연평균 20건대 전후에 머물렀던 총기 난사 발생 건수는 2019년에 34건으로 늘었다가 코로나19의 세계적인 유행으로 2020년에는 21건으로 잠시 줄었으나 이듬해부터는 다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에 따르면 2022년 한 해 동안 미국에서 총상을 입고 숨진 사람의 수는 4만8천여 명이며, 이중 54%가 극단적 선택으로 숨졌다.

노스이스턴 대학의 형사 및 행정법학 전문가 제임스 앨런 폭스 교수는 총기 난사는 미국에서 발생하는 총기 관련 폭력 사건의 극히 일부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 '리튬 로또' ... '솔턴호'에 배터리 3억 7,500만 개 분량 리튬 매장



▲ 항공기에서 찍은 솔턴호 전경. 사진=shutterstock

염호인 솔턴호는 그 면적이 974km<sup>2</sup>로 캘리포니아에 있는 호수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크다. 솔턴호는 지난해 막대한 양의 리튬이 매장돼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광물 전문가들의 보고가 있은 후 미국에너지국을 중심으로 매장량 조사를 시작했다.

현재 리튬 1t의 가격은 2만 9,000달러 선으로, 솔턴 호수에만 약 5,400억 달러어치의 리튬이 매장돼 있는 셈이다. 미국에너지국은 "솔턴호에 매장된 리튬의 양은 전기차 배터리 3억 7,500개를 만들 수 있는 양"이라면서 "염수에서 직접 리튬을 추출하는 방식을 이용할 경우 340만에 달하는 리튬을 생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캘리포니아주에 임페리얼카운티와 리버사이드카운티에 걸쳐 있는 솔턴 호수에서 대규모의 리튬이 매장된 것으로 드러났다.

5일 '나우뉴스'에 따르면 미국에너지국(Department of Energy)은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서 솔턴호에 매장된 리튬이 1,800만에 이른다고 밝혔다.

리튬은 스마트폰부터 전기차, 태양광 패널에 이르기까지 4차산업의 핵심 구성 요소로 꼽힌다. 특히 전기차 보급이 확대되면서 리튬의 수요는 빠르게 증가했지만, 대체로 리튬 등의 핵심 소재는 중국 의존도가 높아 갈등의 불씨가 되기도 했다. 이런 까닭에 이번에 솔턴 호수에 매장된 막대한 양의 리튬은 미국의 '탈중국'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 조지아주 첫 아시아계 시장 탄생 ... 한국계 존 박 시의원



▲ 존 박 당선인과 부인 모건 해리스. 사진=facebook

조지아주 브룩헤이븐시 시장 선거 결선 투표에서 한국계 미국인 존 박(한국명 박현중) 브룩헤이븐시 전 시의원이 당선됐다.

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박 당선인은 전날 실시된 결선 투표에서 58.6%(3천564표)를 득표해 41.4%(2천520표)를 득표한 로렌 키퍼 후보에 승리했다. 이로써 박 당선인은 조지아주의 첫 아시아계 시장이면서 한국계 첫 시장이라는 기록을 세웠다.

박 당선인은 1970년대에 가족과 함께 미국에 이민했다. 예모리대에서 경영학을 공부했다.

2014년 보궐 선거로 처음 시의원에 당선됐고 9년간 3선 시의원을 지냈다. 그는 시장 출마를 위해 지난 8월 시의원직을 사임했다. 그는 내년 1월 시장에 공식 취임한다.

박 당선인은 2017년 6월에는 브룩헤이븐시 공원 내 애플랜타 평화의 소녀상이 세워지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이 소녀상은 2021년 애플랜타 총격 사건 당시 희생자 추모식과 헌화식이 열리는 등 미국 현지 여성 인권 상징으로 주목받고 있다.

박 당선인은 유창한 한국어로 "너무 기뻐서 말을 못하겠다."고 당선소감을 밝혔다. 그는 이어 영어로 "이민 1세대로서 조지아주 최초의 아시아계, 한국계 시장이 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며 "그동안 한인들의 성원과 기부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열심히 일해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사장님,  
칭내세요!  
대박나게 도와 드릴게요.

# 대박사인

배너, 메뉴보드, 전단, 명함 등  
각종 실내외 사인부터  
광고, 디자인까지-

Tel.(323)641-7907

1890 W Washington Blvd  
Los Angeles, CA 90007